

개인 특성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힙스테드 문화특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오해동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박사과정)*

최지연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박사과정)**

노전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교수)***

국 문 요 약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창업가의 개인 특성과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환경적 특성과 같은 외부적 요인을 간과해 온 경향이 있다. 창업결정에 있어 개인적 성향 뿐 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창업 관련 연구 결과의 공백을 메우고자 힙스테드 문화차원 이론을 적용하여, 개인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연구하였다. 제시된 연구 모형에서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 하였는데, 총 244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다중집단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특성(내적통제,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정신(자율성, 혁신성, 진취성)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힙스테드 문화특성요인 중 불확실성 회피 성향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와의 인과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창업에 있어 진취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관련 교육기관이나 창업매니저들은 창업가들의 진취성을 함양하는 방식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의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변수와 기타 개인적 변수의 상호작용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기업가정신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기업가정신의 제 요소들을 포괄하여 요인들 간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보의 중복 없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업가정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핵심주제어: 내적통제, 자기효능감, 진취성, 창업의도, 힙스테드 문화특성

1. 서론

최근 급변하는 사회 및 산업 환경에 따라 중년층의 조기퇴직 및 청년 실업의 급증 현상은 일부 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 정책의 최우선적인 해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의 건전성 확보가 국가적인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창업은 실업 및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 되고 있다. Lumpkin & Dess(1996)는 창업 활동은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이며 고용 창출과 실업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창업이 활성화 되려면 잠재적인 창업가들이 창업을 결정하고 실천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즉, 창업의도가 선행되어야 한다(Yoon, 2004).

개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개인 특성에 대하여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고 개인 특성이

창업 여부와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고려된다(Lee, 2000).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및 성공여부의 연관성을 밝혀왔다(Brockhaus, 1982; Lee, 2000; Yoon, 2004; Moon & Hwangbo, 201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적 특성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개인성향들은 그 범위와 개념들이 중복되거나 모호한 점들이 있다. 또한, 이러한 변수들이 일방적으로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외부 환경을 포함해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Cho, 2009), 여러 다양한 변수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할 보다 포괄적인 연구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업 활동과 같은 사회적 활동은 문화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문화는 사회시스템 안에서 학습되는 것이며, 인간의 일상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가치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Vitell et al, 1993). 힙스테드의 문화차원은

* 제1저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정경대학 경영학부, 박사과정, haedongoh@hanmail.net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정경대학 경영학부, 박사과정, cjt0853@naver.com

***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정경대학 경영학부, 교수, nohj@yonsei.ac.kr

· 투고일: 2015-11-24 · 수정일: 2016-03-01 · 게재확정일: 2016-04-07

특히 비즈니스와 관련된 문화적 요인을 파악하는데 널리 이용되어 왔다(Moon & Franke, 2000; Vitell et al, 1993).

이에 본 연구는 창업가의 개인특성, 기업가정신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흡스테드 문화이론에 의한 문화특성이 다른 경우 기업가정신, 창업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비록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많지만, 문화특성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개념

2.1 내적통제소재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한 신념이 강한 통제소재는 그동안 연구자들로 하여금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Brockhaus, 1982). 내적 통제소재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자신의 태도 혹은 자신의 타고난 성격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며, 반면 외적 통제소재는 모든 일이 자신이 아닌 다른 외부의 다양한 환경에 의한 것으로 믿는 것이다(Rotter, 1996). 또한 Rotter(1996)은 보상에 대해해서 내적통제소재와 외적 통제소재 간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내적통제소재는 보상이 개인들 태도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는 인식이며 외적 통제소재는 보상은 우연의 기회와 같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불확실성과 위험이 항상 뒤따르는 창업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적통제소재 보다는 내적통제소재가 더욱 밀접 하다(Brockhaus, 1982). 이와 마찬가지로 Rotter(1966)은 창업자는 행운이나 운명에 의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념과 자신감이 강해야 하므로 내적통제소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적통제소재는 위험이 수반되는 창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창업자 심리 특성이다(Cromie & Johns, 1983).

2.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하고 실행해 갈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말한다(Bandura, 1977). 즉, 주어진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 개인의 구체적인 숙련 수준에서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Gist, 1987). 또한, 자기효능감은 경험을 통한 점진적인 복잡한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육체적인 기술 습득을 통하여 발생한다(Bandura, 1986).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상황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준비하고 인지적 자원 및 행동에 대한 자신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언급한다. 자기효능감은 규모, 능력, 보편성이라는 3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규모(Magnitude)는 개인들이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과제의 수준이며, 능력(Strength)은 규모에 대한 확신에 대한 강도를 나타낸다. 보편성(Generality)은 기대치가 모든 상황에 대하여 보편

화가 된 정도를 나타낸다(Bandura, 1977).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상황에 대한 통제력과 행동의 선택, 노력의 수준 및 지속성, 장애나 실패에 대한 극복 정도,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과 반응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고, 동기,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Bandura, 1977). 또한 학습, 경험 및 반응을 변화시키며 인간의 성취와 건전한 번영은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andura, 1988). Boyd & Vozikis(1994)가 처음으로 자기효능감을 창업 연구에 도입하였고, 이후 이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왔다(Kim & Kim, 2012).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간의 관계는 실증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아왔다(Chen et al. 1998; Diaz-Garcia & Jimenez-Moreno, 2010.; Krueger & Brazeal, 1994; Gelderen et al, 2008). 요약하면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있어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개념이며, 즉, 개인의 선택, 목표, 감정적인 반응, 대처, 노력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

2.3 자율성

자율성이란 ‘개인의 독립적인 행동으로 무엇을 완성하기 위해 생각이나 시각(Vision)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일반적인 의미로는 기회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과 의지’를 말한다(Lumpkin & Dess, 1996). 관료적인 계층이나 조직의 전통은 창업 활동과 자율성을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Kanter, 1983). 이에 대해 Burgelman(1983)은 조직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강한 지도자나 창조적인 개인들에 의한 자율성 활동이 이들을 창업으로 유도한다고 언급한다. 그러므로 자율성이 강한 사람은 타인에게 엄매일 수밖에 없는 임금 근로자 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자기 사업, 즉 창업을 선호하게 마련이다.

2.4 혁신성

혁신성은 ‘조직에서 어떤 새로운 제품, 과정, 생각을 소개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된다 (Damanpour, 1991). 혁신성은 단순한 발명을 넘어서 생각의 상용화, 기존 제품 및 자원과 체제의 변화 및 응용에 관여한다(Bird, 1989). Schumpeter(1934)는 창업자는 혁신가이며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운용하거나 원료의 새로운 원천을 찾아내는 것으로 제시한다.

Zaltman et al.(1973)은 혁신성의 과정 중의 하나로 개시(Initiation)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개시 상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혁신성에 대한 문화적인 개방성이며, 개방성은 조직의 구성원이 혁신을 채택 또는 저항을 하는지를 포함한다(Zaltman et al, 1973). Schumpeter(1934, 1954)는 기업가 과정에서 최초로 혁신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창조적 파괴의 경제적 절차의 윤곽을 만들었다. 즉, 부(Wealth)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한 기존시장의 붕괴에 의해 형성되며 이로 인해 기존 기업에서 자원이 이탈되어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

는 원인을 제공하고 이러한 활동주기의 핵심은 기업가정신임을 제시했다. Hage(1980)는 혁신성은 기업가정신을 묘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기업에서 참여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생각, 새로움, 실험 및 창조적인 절차에 대한 경향을 반영한다고 했다. 혁신성은 기존의 기술이나 관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Kimberly, 1981).

2.5 진취성

진취성이란 ‘개인이 상황에 의해 구애 받지 않고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Bateman & Crant, 1993). 따라서 진취적인 개인은 항상 기회를 모색하고 주도성을 보이며 변화에 대한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는 성향이 있다(Bateman & Crant, 1993). 실증적인 정의로 Lumpkin & Dess(1996)는 진취성은 경쟁자보다 앞선 제품을 위한 지속적인 기회 모색과 진취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진취성의 기업수준의 정의로는 미래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집중하는 진취적인 자세(Lumpkin & Dess, 2001)라고 제시한다. 진취적인 자세는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비전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Bird, 1989; Schumpeter, 1954). 진취성의 정의 내용 중에 기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는데 Schwartz et al.(2005)은 기회 인식을 창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제시한다.

2.6 홈스테드 문화 차원

Barnouw(1979)는 문화를 “언어와 모방의 수단을 통해 한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전해진 정형화된 학습태도의 형태”라고 정의한다. Kroeber & Parson(1958)는 문화의 정의에 인간을 다듬는 요인으로써, 가치의 모양, 생각, 다른 상징적인 의미 있는 체계를 포함시킨다. Hofstede(1980)는 문화를 가치의 체계를 포함한 하나의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과 구분하는 마음의 집단적인 프로그래밍이라고 제시한다. 또한 문화를 4가지 측면으로 개념화 했는데, 1)개인주의/집단주의, 2)남성성/여성성, 3)권력간 거리, 4)불확실성의 회피가 그것이다. 개인주의/집단주의는 개인과 그들의 동료개인들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남성성은 사회에서 성별간의 역할을 포함하며, 권력간 거리는 사회의 구성원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다룬다. 불확실성 회피는 미래가 불확실하므로 사회가 불확실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에 관여한다. Hofstede 모델은 문화의 개념에 대한 접근로서 광범위하게 수용 되어왔다(Albaum et al, 2010) Tavakoli et al.(2003)는 Hofstede이론이 소비자들간의 문화적인 차이들을 설명하는 체계를 제공하며 소비자들간의 문화의 차이는 소비자의 도덕적인 태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제시한다. 또한 Mooradian & Swan(2006)은 Hofstede의 모델이 교차 문화 마케팅 조사 체제에 가장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활용된다고 밝힌다.

2.7 창업의도

창업의도는 ‘잠재적인 창업자가 사업구상을 하고 연관된 조직 방향 설정을 위해 집중하고 행동을 취하고자하는 창업자의 마음가짐’으로 정의된다(Bird, 1988). 일부 연구는 창업활동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태도’라고 제시하는데 이는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계획 수립과 창업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Bagozzi et al, 1989; Krueger, et al, 2000). 또한 의도는 창업개시 활동과 외적 영향간의 중요한 조절 변수 역할을 하므로 의도를 잘 이해하는 것은 기회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특히 가치가 있다고 제시 한다(MacMillan & Katz, 1992). 더욱이, 잠재 창업가의 창업 의도는 국가나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직이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력과 자기쇄신 특성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는 창업의도를 가진 잠재 창업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Shapero & Sokol, 1982).

III. 연구 모형 및 가설

3.1 내적 통제와 기업가정신

내적 통제는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심리적 특성들 중의 하나이다(Perry, 1990). 기업가정신과 내적통제간의 관련은 밀접한 타당성이 있다. 기업가는 주도자이며 자신의 행복에 대해 책임을 지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McClelland, 1961). 잠재적 기업가는 외적 통제보다는 내적 통제를 가지게 된다(Brockhaus 1982). 1970년대의 내적통제와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Jennings & Zeithaml, 1983). 예를 들어, Borland(1974)는 창업을 준비하는 경영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가정신을 가진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은 내적 통제 경향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들이 비기업가들 보다 내적통제가 강하다는 것이다. 한편, Bonnett & Furnham(1991)은 3가지 측면(내부, 외부, 기회)의 연구를 통하여 잠재적 기업가 학생그룹들이 좀 더 내적통제소재를 가졌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내적 통제소재가 강한 사람은 정보 수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창업이야말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풍부한 정보를 수집한 사람은 환경을 잘 통제할 수 있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Sexton & Bowman, 1986). 이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1: 내적 통제소재가 높을수록 기업가정신이 높을 것이다

3.2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정신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에 권한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성과에 대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Redmond et al.(1993)은 리더의 행동특성인 문제 대응력이나 자기효능감이 부하들의 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 중 하나이며(Bandura, 1988), 이러한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은 기업에서 수립하는 전략 비전이나 목표에 반영된다는 것이다(Bird, 1989).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동기가 부여되는 개념이며, 개인의 선택, 목표, 감정적인 반응, 노력, 대처, 집요함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습, 경험, 반응의 결과에 따라 변할 수 있다(Gist & Mitchell, 1992).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특성과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 한다.

가설2: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기업가정신이 높을 것이다.

3.3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기업가정신은 시장기회를 발견하고, 개발하며, 활용하는 것(Shane & Venkataraman, 2000)으로 기업가정신에 의한 창업과 성장은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Storey, 1994). 현재까지 수행되어온 기업가정신의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기업가들의 심리특성에 초점을 맞춘 성취욕구, 통제소재,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exton & Bowman, 1986; Park & Ku, 2007; Kim & Yoo, 2013). Lumpkin & Dess(1996)는 자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 적극성, 진취성을 기업가정신의 5가지 요인으로 나타낸다. 반면, Miller(1987)는 기업가정신과 성공 여부의 요인으로 혁신성, 위험감수, 진취성을 제안했다. 이처럼 기업가정신에 관한 논의들은 그 구성요인들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umpkin & Dess(1996)의 기업가정신 변수에서 위험감수성과 진취성을 제거한 나머지 자율성, 혁신성, 진취성 3가지를 기업가정신으로 본다. 위험감수성과 적극성을 제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들에서 기업가정신의 변수로 제시하는 위험감수의 경우, 일부 실증 연구에서는 위험 감수성향이 창업자와 일반적인 기업 간부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Brockhaus, 1982). 이는 위험성에 대한 지각이 창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보다는 위험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창업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Moore, 1986). 둘째, 적극성의 경우, 진취성과 매우 유사한 개념적 정의를 보인다. 진취성은 '트렌드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수요(Demand)를 창출 경향'이며, 적극성은 '이미 존재하는 경향이나 수요에 대해 반응'하는 차원이며(Chen & Hambrick, 1995; Lumpkin & Dess, 2001), '경쟁에 앞서고 항상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기대하고 행동하는 측면'이다(Venkataraman, 1989), 따라서 변수의 다중공선성의 발생을 제거하고, 변수들을 창업이라는 맥락에 더욱 부합시키기 위해 적극성을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 진취성, 자율성'을 기업가정신의 중요한 변수로 간주함으로써 가설1, 가

설2에 대한 세부가설을 제시하는 바이다.

1-1: 내적 통제소재가 높을수록 기업가정신 중 자율성이 높을 것이다.

1-2: 내적 통제소재가 높을수록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이 높을 것이다.

1-3: 내적 통제소재가 높을수록 기업가정신 중 진취성이 높을 것이다.

2-1: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기업가정신 중 자율성이 높을 것이다.

2-2: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이 높을 것이다.

2-3: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기업가정신 중 진취성이 높을 것이다.

3.3.1 자율성과 창업의도

조직의 절차나 체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 창업활동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은 독립정신이고 이에 따라 자율성 개념이 창업의 중요한 측면으로 고려되고 있다(Lumpkin & Dess, 1996). Feldman & Bolino(1997)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의하면, 이들의 특성 중 자율성과 독립성이 가장 높은 비율(46%)을 차지했다. 가장 강한 자율성을 가진 응답자들의 일부 언급 사항들은 '자율성은 본인의 개성과 가장 잘 맞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을 결코 좋아 해 본 적이 없다' 등이 있다. 이렇듯, 자율성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정해진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의사결정을 하고 스스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Lumpkin & Dess, 1996). 때문에 조직의 규정과 상사로부터 탈피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Schein, 1990),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Feldman & Bolino, 2000). 그러므로 자율성이 강한 사람은 타인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는 조직의 직원대신 비교적 자유로운 본인 소유의 사업, 즉 창업을 선호할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3: 기업가정신의 요소인 자율성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을 것이다.

3.3.2 혁신성과 창업의도

잠재적인 창업가는 개인적인 특성 중 혁신성과 창조성을 겸비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한다(Bird 1989; Carland et al, 1984). 예를 들어, Sexton & Bowman(1986)은 경영학 전공 학생들은 경영관리 전공 학생들보다 더 혁신적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Carland et al.(1988)은 사업의 기본을 이익과 성장으로 하는 기업가는 소규모 사업자들보다 혁신성을 선호하는 것을 알아냈다. 이처럼 혁신성은 기업가들이 겸비한 자질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을 시작하는 주요동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hane et al.(2000)은 혁신의 기회와 새로운 기술의 주도가 창업을 시작

하는 주된 이유라고 밝힌다. 기업가정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기업가와 비기업가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특징을 알아냈는데 이 중 혁신성도 포함이 되어있다(Kirton, 1978). 기업가는 항상 새로운 기회와 문제들을 찾으며 이에 대한 개선 프로젝트를 주도한다. 이러한 혁신성은 기업가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다(Mintzberg, 1973). 이에 아래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4: 기업가정신의 요소인 혁신성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을 것이다.

3.3.3 진취성과 창업의도

진취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변화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도권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즉, 창업자는 사전에 준비된 상황과 요건들을 창업의도와 결합하여 창업을 실행한다(Kouriloff, 2000). 창업은 혁신과 새로운 창업 활동에 수반되는 진보적인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진취성이 중요하다(Cooper & Dunkelberg, 1986). 진취성은 경향(Trend)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수요(demand)를 창출하는 하는 역할을 한다(Chen & Hambrick, 1995; Lumpkin & Dess, 2001). 또한, 잠재적인 창업자가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확률을 증가시키며 창업의도와 창업 실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ong et al. 1995).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5: 기업가정신의 요소인 진취성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을 것이다.

3.4 홉스테드 문화 특성의 조절 효과

가치관과 규범은 인간의 태도를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힘이다(Mueller & Thomas, 2000). 가치관은 일반적으로 인생의 초반에 결정이 되므로, 개인들이 '예정화(Programmed)' 되어있는데, 이는 문화의 내용과 지속적이고 장기간 진행되는 태도 구성의 결과를 가져온다(Bamouw 1979; Hofstede 1980). 따라서 가치관 체계의 근본을 이루는 문화는 어떤 개인적 특성 발전의 모양을 이루고 다른 사회에 만연하지 않은 태도에 개입하도록 개인들을 동기 부여한다.

창업과 같은 기업가정신은 이러한 태도들 중의 하나로, 이것은 가치관과 신념이 상이함에 따라 나라별, 문화권별로 다양하다. 분명히 기업가 태도의 근본을 이루는 많은 요인들은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문화가 어떤 개인적 특성을 강화 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특성은 다른 문화특성보다 기업가 특성과 좀 더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Mueller & Thomas, 2000). Huisman(1985)은 모든 문화에 걸친 기업가 활동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고 문화의 가치는 기업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지었다. McGrath et al.(1992) 역시 10개국의 기업가와 비기업가의 연구를 통해 비슷한 결론을 제시한다. 비록 Hofstede의 문화에 대한 4개 축면의 이론이 문화와 기업가 활동의 관계를 구체화 하지는 못했지만 기업가 성향과 관련된 주요 요소를 밝혀내는 데는 유용하다(Mueller & Thomas,

2000). 본래 홉스테드의 문화차원은 IBM의 다국적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적에 따른 고유한 문화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개인들일지라도 모두가 같은 문화적 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Robertson & Hoffman(2000)은 홉스테드의 문화차원 이론중 일부를 개인적 수준으로 변환시켜 같은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라도 상이한 문화적 성향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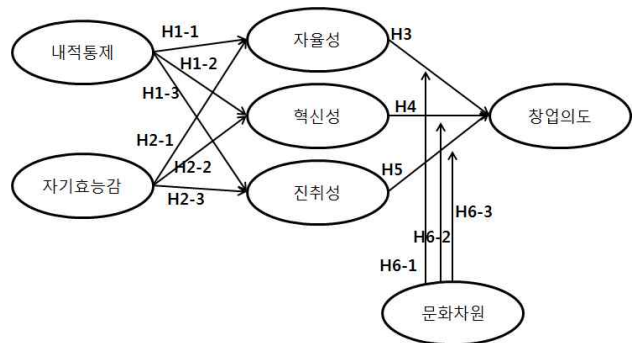
Martin & Nakayama(2000)는 홉스테드 문화차원을 가지고 한국인 PR전문가들의 성향을 측정하였다. 이들은 연구는 한국인들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홉스테드가 조사한 것에 비해 유교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Martin & Nakayama(2000)는 홉스테드 모델은 개인적 성향의 편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문화적 성격이 한 문화권에서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화차원 이론은 문화권별 비교뿐만 아니라, 개인의 고유속성 상에도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속성은 어떤 대상(e.g., 창업의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는 바이다. <그림 1>은 수립한 가설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도식화 한 것이다.

가설6: 문화 특성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6-1: 문화 특성은 기업가정신 요소 중 자율성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6-2: 문화 특성은 기업과 정신 요소 중 혁신성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6-3: 문화 특성은 기업과 정신 요소 중 진취성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모형

IV. 연구방법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문항

연구 모형의 검증을 위해 모든 변수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와 이에 해당하는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내적 통제성은 Levenson(1973), Chen et al.(1998)의 연구를 기초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및 결과들에 대해 자

신이 영향을 미친다는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측정 항목은 1) 나는 계획을 세우면 대부분 달성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항상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항상 내 개인적인 흥미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이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은 Chen et al.(1998), Moreno-Jimenez(2010)의 연구를 기초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측정 항목은 1) 나는 향후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 2) 나는 현재 남들보다 필요한 지식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4)나는 현재 내가 가진 지식을 미래에 유용하게 발휘할 능력이 생길 것이다, 5) 나는 내 능력이 남들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자율성은 Scheinberg & MacMillan(1998), Lumpkin & Dess (1996)의 연구를 기초로, '기회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과 의지'로 정의하였다. 측정 항목은 1)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면했을 때 내 스스로 결정하고 그 책임을 지려는 편이다, 2) 나는 한번 시작한 일은 어려운 난관이 닥치더라도 마무리 하는 편이다, 3) 나는 어떤 아이디어가 머리에 떠오르면 실행을 하는 편이다, 4) 나는 내가 속한 팀에서 비전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편이다, 5) 나는 내가 속한 팀원을 하나로 이끄는 재능이 있는 편이다 와 같이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혁신성은 Chen et al.(1998)의 연구를 기초로,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측정 항목은 1) 나는 최신 트렌드에 관심이 많다, 2) 나는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좋아 한다, 3) 나는 새로운 방법, 독창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4) 나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 한다와 같이 4개 항목으로 측정 하였다.

진취성은 Lumpkin & Dess(1996)의 연구를 기초로, '경쟁자보다 앞선 제품을 위한 지속적인 기회 모색과 진취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측정 항목은 1) 나는 틈새시장을 발견하고 공략을 하는데 자신이 있다, 2) 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주도하는데 재능이 있다, 3) 나는 기존과 전혀 다른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소개하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자신이 있다, 4) 나는 고객의 수요가 파악되면 누구보다 기민하게 수요에 대응해서 반응할 자신이 있다'와 같이 4개 항목으로 측정 하였다.

문화차원은 Hofstede(1980)의 연구를 기초로 홉스테드의 4가지 문화 이론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는 개인과 그들의 동료개인들과의 관계, 남성성은 사회에서 성별간의 역할, 권력간 거리는 사회의 구성원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 불확실성 회피는 미래가 불확실하므로 사회가 불확실성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으로 정의하였다. 개인주의의 5개, 남성성 4개, 불확실성 회피 4개, 권력간 거리 6개 항목으로 총 19개

항목으로 측정 하였다.

창업의도는 Crant(1996), Moreno-Jimenez(2010)의 연구를 기초로, '스스로 개인 사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였다. 측정항목은 1) 나는 언젠가 스스로 나의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2) 나는 취업 또한 나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한다, 3) 나는 많은 위협이 있다 해도 창업할 것이다, 2) 나는 창업하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한다와 같이 총 4개 항목으로 측정 하였다.

4.2 자료수집과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4년 11월 5일부터 2014년 12월 4일까지 약 한 달간 대학생 및 일반인(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신뢰성 검증(크롬바흐 알파), 수렴 타당성 검증(탐색적 요인분석), AMOS 19.0을 이용하여 집중 및 판별 타당성 검증(확인적 요인분석), 가설 검증(경로분석, 다중집단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V. 분석 결과

5.1 표본자료의 특성

설문지 응답은 총 245부(대학생 102명, 일반 회사원 143명)배포 중 모든 항목에 결측치가 있는 1부를 제외한 총 244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77.1%, 21.2%로 남자 응답자가 많았으며, 연령은 25세 이하가 36.3%, 학력은 대졸 47.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경상계열이 53.1%로 가장 많았다. <표 1>은 표본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89	77.1
	여자	52	21.2
	무응답	4	1.6
전공	공학	50	20.4
	경상	130	53.1
	인문사회	22	9.1
	자연계열	21	8.6
	기타	20	8.2
	무응답	2	0.8
	연령	25세 이하	89
26-35세	86	35.1	
36-45세	55	22.4	
46-55세	12	4.9	
56세 이상	2	0.8	
무응답	1	0.4	
학력	대학 재학	102	41.6
	대졸	117	47.8
	대학원 이상	25	10.2
	무응답	1	0.4

<표 2> 독립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요인	측정항목	항목수	EFA로딩값			공통성	Cronbach' α
내적통제	내적통제1	3			.726	.659	.776
	내적통제2				.853	.776	
	내적통제3				.778	.637	
자기 효능감	효능감1	5	.642			.453	.806
	효능감2		.758			.584	
	효능감3		.673			.678	
	효능감4		.696			.625	
	효능감5		.705			.552	
고유값			2.633	2.332			
누적분산(%)			32.907	62.052			
KMO Bartlett 구형성 검정						.863 740.913(P=.000)	

<표 3> 매개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요인	측정항목	항목수	EFA로딩값			공통성	Cronbach' α
자율성	자율성1	5			.690	.500	.768
	자율성2				.684	.486	
	자율성3				.598	.445	
	자율성4				.736	.609	
	자율성5				.721	.579	
혁신성	혁신성1	4			.795	.681	.758
	혁신성2				.837	.747	
	혁신성3				.608	.534	
	혁신성4				.606	.438	
적극성	진취성1	4	.806			.725	.894
	진취성2		.859			.812	
	진취성3		.842			.793	
	진취성4		.775			.723	
고유값			3.041	2.682	2.348		
누적분산 (%)			23.393	44.022	62.085		
KMO Bartlett 구형성 검정						.849 1384.690(P=.000)	

5.2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탐색적 요인분석

<표 2>부터 <표 5>은 신뢰도 분석 및 탐색적 요인 분석을 나타낸 결과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의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 값 .7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변수의 신뢰

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요인분석 적재치(.5 이상), 공통성(.5 이상), 누적분산(60%이상)이 모두 양호하며,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 또한 유의하기 때문에 단일차원 성과 구성신뢰도가 충족 되었다고 할 수 있다(Hair et al. 2010).

<표 4> 조절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요인	측정항목	항목수	EFA로딩값				공통성	Cronbach' α
집단주의	집단주의1	5	.777				.611	.813
	집단주의2		.829				.692	
	집단주의3		.754				.671	
	집단주의4		.620				.466	
	집단주의5		.652				.524	
남성성	남성성1	4		.817			.712	.846
	남성성2		.815			.702		
	남성성3		.795			.638		
	남성성4		.816			.700		
불확실성 회피	불확실회피1	4				.722	.530	.794
	불확실회피2					.811	.725	
	불확실회피3					.805	.692	
	불확실회피4					.700	.547	
권력간 거리	권력거리1	6			.670		.518	.745
	권력거리2				.468		.287	
	권력거리3				.715		.595	
	권력거리4				.651		.455	
	권력거리5				.720		.598	
	권력거리6				.709		.504	
고유값			2.925	2.830	2.720	2.692		
누적분산(%)			15.397	30.294	44.609	58.777		
KMO Bartlett 구형성 검정						.767 1771.402(P=.000)		

<표 5> 종속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요인	측정항목	항목수	EFA로딩값	공통성	Cronbach's α
창업의도	창업의도1	4	.925	.855	.916
	창업의도2		.906	.820	
	창업의도3		.876	.767	
	창업의도4		.870	.758	
고유값			3.199		
누적분산(%)			79.975		
KMO			.845		
Bartlett 구형성 검정			700.335(P=.000)		

5.3 타당성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표 6>는 본 연구 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에 대한 결과이다.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2=447.444$, $DF=260$, $\chi^2/DF=1.721$, $RMR=0.047$, $GFI=0.875$, $AGFI=0.843$, $NFI=0.866$, $CFI=0.938$, $RMSEA=0.054$ 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Chaivy 2013). CFA적재치와 R2는 모두 양호한 편이며(.05이상), 모든 변수의 개념 신뢰도가 .7이상이며,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도 한 변수를 제외하고는 .5이상(Hair et al 2010)이므로 대체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AVE를 미달하는 변수도 그 값이 .496으로 이는 수용가능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측정변수의 개념 신뢰도와 집중타당성이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Hair et al. 2010; Chaivy, 2013).

5.4 구성개념의 판별 타당성 분석

<표 7>의 판별타당성 분석을 보면, 각 대각선의 수치는 AVE의 Square Root값을 나타낸다. 이 수치가 변수간의 상관 계수보다 크면 개념 간 매우 강한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Hair et al. 2010; Chaivy, 2013).

내적통제, 자기효능감, 자율성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지만,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이미 그 개념들 간의 요인 간 차이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판별타당성 분석이 가장 엄격한 방법임을 고려할 때, 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별타당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9를 넘지 않으면 대체로 판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Chaivy 2013), 이러한 변수를 가지고 가설 검정을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표 7> 구성개념의 판별타당성 분석

요인	1	2	3	4	5	6
1. 내적통제	.765*					
2. 자기효능감	.789	.743*				
3. 자율성	.781	.823	.704*			
4. 혁신성	.506	.512	.533	.707*		
5. 진취성	.482	.484	.569	.580	.861*	
6. 창업의도	.274	.438	.298	.286	.432	.814*

*Square root of AVE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 항목	항목수	CFA 로딩값	t값	R ²	개념 신뢰도	AVE
내적통제	내적통제1	3	.794	-	.631	.808	.586
	내적통제2		.788	11.902	.621		
	내적통제3		.633	9.540	.401		
자기 효능감	효능감1	5	.563	-	.316	.858	.553
	효능감2		.579	7.126	.663		
	효능감3		.818	8.799	.668		
	효능감4		.749	8.400	.561		
	효능감5		.651	7.709	.423		
자율성	자율성1	5	.584	-	.342	.830	.496
	자율성2		.596	7.315	.355		
	자율성3		.600	7.357	.361		
	자율성4		.679	8.005	.461		
	자율성5		.702	8.177	.493		
혁신성	혁신성1	4	.695	-	.482	.798	.501
	혁신성2		.781	9.660	.610		
	혁신성3		.666	8.715	.444		
	혁신성4		.540	7.265	.291		
진취성	진취성1	4	.759	-	.576	.920	.742
	진취성2		.840	13.529	.705		
	진취성3		.882	14.239	.779		
	진취성4		.820	13.169	.672		
창업의도	창업의도1	4	.913	-	.834	.887	.663
	창업의도2		.874	19.804	.764		
	창업의도3		.816	17.281	.666		
	창업의도4		.824	17.604	.679		
Overall model fit			$\chi^2=447.444$, $DF=260$, $\chi^2/DF=1.721$, $RMR=0.047$, $GFI=0.875$, $AGFI=0.843$, $NFI=0.866$, $CFI=0.938$, $RMSEA=0.054$				

5.5 가설 검정

5.5.1 가설 검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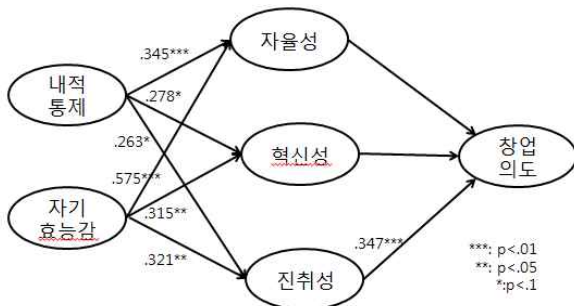
<표 8>은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을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분석 결과, 가설 1, 2, 5가 채택되었으며(세부가설 포함), 가설 3과 4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성향 변수인 내적 통제와 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기업가정신 구성 요소 모두가(자율성, 혁신성, 진취성)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내적통제소재는 기존의 알려진 기업가정신의 요소인 자율성($\beta=.345, p<.01$), 혁신성($\beta=.278, p<.1$), 진취성($\beta=.263, p<.1$)에 모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또한 자율성($\beta=.575, p<.01$), 혁신성($\beta=.315, p<.05$), 진취성($\beta=.321, p<.05$)에 모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는 진취성만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47, p<.01$). 이와 관련한 논의는 결론에서 다룰 것이다. <그림 2>는 이 같은 결과를 도식화 한 것이다.

<표 8> 구조방정식 경로분석을 이용한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t값 (유의수준)	가설 지지여부
가설1-1	내적통제 -> 자율성	.345	2.766(***)	채택
가설1-2	내적통제 -> 혁신성	.278	1.852(*)	채택
가설1-3	내적통제 -> 진취성	.263	1.901(*)	채택
가설2-1	자기효능감 -> 자율성	.575	4.110(***)	채택
가설2-2	자기효능감 -> 혁신성	.315	2.090(**)	채택
가설2-3	자기효능감 -> 진취성	.321	2.303(**)	채택
가설3	자율성 -> 창업의도	.143	1.564	기각
가설4	혁신성 -> 창업의도	.029	.348	기각
가설5	진취성 -> 창업의도	.347	4.385(***)	채택
Overall model fit	$\chi^2=493.927, DF=265, \chi^2/DF=1.864, RMR=0.060, GFI=0.864, AGFI=0.833, NFI=0.852, CFI=0.924, RMSEA=0.060$			

* $p<.1$, ** $p<.05$, *** $p<.01$



<그림 2> 연구결과 모형

5.5.2 문화특성의 조절 효과

<표 9>와 <표 10>은 문화특성에 대한 다중집단 비교 분석의 결과이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문화특성의 각

4가지 구성개념(집단주의, 남성성, 불확실회피, 권력거리)을 평균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할하였다. 그 후, 높은 평균을 가진 집단과 낮은 평균을 가진 집단 간의 다중 분석을 통해 전체 집단 모형의 적합도 변화를 평가하고, 비교가능 경로 3가지(자율성->창업의도, 혁신성->창업의도, 진취성->창업의도)에 대해서 경로계수의 유의수준을 비교한다.

구체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비제약모형과 측정모형을 비교하였다. 비제약모형에서 측정항목들의 람다값(측정모형 경로)을 제약시킨 결과, 카이스퀘어 등 다른 적합도 지표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p>.01$). 그 다음, 비제약모형과 구조 가중치를 고정시킨 구조모형을 비교한 결과 비제약모형에 비해 카이스퀘어 변화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다음으로, 경로계수와 해당 유의수준을 비교하면 된다. 카이스퀘어 변화량 차이로 인해 자율성과 창업의도 간의 경로만이 비교 가능해졌다.

<표 9> 비제약 모형과 제약모형간의 적합도 비교

	1. 비제약모형	2 측정모형 (equal lambda)	3. 구조모형 (equal gamma)
χ^2	858.783(p=.000)	877.006(p=.000)	898.669(p=.000)
df	530	549	558
RMR	.073	.076	.094
NFI	.763	.758	.752
CFI	.891	.891	.887
등지모형		2-1	3-1
$\Delta\chi^2$		18.223	39.886
Δdf		19	28
유의수준		0.508	0.068

<표 10>은 비교가능한 경로(자율성, 혁신성, 진취성 -> 창업의도)에서 분석한 다중집단 비교분석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문화 특성 요인 중 불확실성 회피가 모형 적합도에 대한 지해 없이 기업이 특성과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전체 표본에서는 자율성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한다고 보일 수 있지만(가설 3), 사실, 이는 불확실성 회피가 높은 집단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자율성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함께, 높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창업관련 연구들과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사실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겠다. 창업을 유도하거나 거부하는 변수는 개인적, 환경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0> 다중집단 비교분석 결과

가설	경로	high 불확실성회피	low 불확실성회피	$\Delta\chi^2 (df=1)$
		표준화경로계수(t값, 유의수준)		
가설6-1	자율성->창업의도	.271(2.425**)	-.262(-1.464)	8.349***
가설6-2	혁신성->창업의도	.096(.971)	.010(.069)	.298
가설6-3	진취성->창업의도	.231(2.450**)	.452(3.327***)	.496

VI.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생과 중견 기업의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개인특성 및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와의 인과관계에서 흡스태드 문화특성이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는지 실증 분석을 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내적통제,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정신(자율성, 혁신성, 진취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연구들에 의해 조사된 변수들은 서로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주는 영향은 진취성에서만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Kim et al.(2013)의 연구, 위험감수성만이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Yoon(2013)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에 있어 진취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Schwartz et al.(2005)은 진취성의 정의 내용 중 기회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기회인식을 창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제시한다. 이는 진취적인 개인은 항상 기회를 모색하고 끝까지 해내는 성향이 있다는 Bateman & Crant(1993)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창업관련 교육기관이나 창업매니저들은 창업가들의 진취성을 함양하는 방식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채택하고, 이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진취성은 새로운 제품과 시장 개발, 고객응대에 대한 자신감으로 측정되어 진다(Lumpkin & Dess, 1996). 이는 창업 프로그램의 수행자들이 제품, 시장 개발 및 고객응대에 자신감을 가질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짐을 시사한다. 즉,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 창업가들이 스스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실천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시뮬레이션 학습 등을 통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복적인 시장 학습과 함께 개인의 자신감을 고양해줄 수 있는 심리적 훈련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시하는 바이다. 또한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교육 커리큘럼 외에 개인의 자신감과 우수한 강사 및 코칭진으로 구성된 창업교육 전문가의 양성도 필요하다(Choi & Hwangbo, 2012).

둘째,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와의 인과 관계에서 흡스태드 문화특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으로 분석함으로써 창업이론 확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중집단 비교분석 결과, 문화 특성 요인 중 불확실성 회피가 기업가 특성과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불확실성 회피가 높은 집단에서만 자율성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창업관련 연구들과는 다소 차별화된 부분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자율성을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자율성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진다(Feldman & Bolino, 2000; Kim et al., 2013)고 하였으나, 본 연구를 통해 자율성이 무조건적으로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나타

났다. 이러한 실증분석은 향후 창업자의 행동특성인 기업가정신의 이해와 창업의도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판단된다. 창업의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환경적 변수와 기존에 고려하지 못했던 개인적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앞서 밝힌 시사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되어 측정된 기업가정신의 변수인 진취성, 혁신성, 자율성 등의 요인만으로는 잠재 창업자의 창업의도를 규명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의 요인들은 특정 부분(e.g., 진취성과 적극성)에서 개념적으로 중복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일부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기업가정신의 요소들을 집합시켜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분석하고, 중복되는 정보 없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업가정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는 실제 창업관련 활동이나 창업성공 여부가 아니라 창업의도가 종속변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변수를 확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취성 측정 항목은 시장, 제품, 소비자 변화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다. 사실 이 같은 항목은 시장상황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들에게 응답의 편향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지극히 보편적인 관점에서의 진취성은 오히려 기업가정신 구성요소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특정한 진취성(학업, 취미)은 또 다른 형태의 응답 편향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업에 매우 진취적인 학생은 창업을 오히려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응답 데이터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이 같은 표본 추출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모집단을 대표할 만한 표본추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 직장인 등 사회적 경험이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차이를 반영하여, 창업의도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

- Albaum, G., Roster, C. A., Wiley, J., Rossiter, J. & Smith, S. M.(2010). Designing web surveys in marketing research: Does use of forces answering affect completion rates?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8(3), 305-313.
- Bagozzi, R., Baumgartner, H. & Yi, Y.(1989). An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intentions as mediators of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0(1), 35-62.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_____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_____(1988). Organisational Applications of Social Cognitive Theory. *Australian Journal of Management*, 13(2), 279-285.
- Barnouw, V.(1979). *Culture and personalty*. Homewood, IL: The Dorsey Press.
- Bateman, T. S. & Crant, M. J.(1993). The proactive compon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A measure and correlat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4(2), 103-118.
- Bird, B. J.(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_____(1989). Entrepreneurial behavior. Glenview, IL: Scott, Foresman, *Engineering Management Journal*, 1(4), 37-40.
- Bonnett, C. & Furnham, A.(1991). Who wants to be an entrepreneur? A study of adolescents interested in a Young Enterprise schem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2(3), 465-478.
- Borland, C. M.(1974). *Locus of control, need for achievement and entrepreneurship*,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 Boyd, N. G. & Vozikis. G. S.(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63-68.
- Brockhaus, R. H.(1982).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C. A. Kent, D. L. Sexton, & K. H. Vesper (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39-71.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urgelman, R. A.(1983). A process model of internal corporate venturing in the diversified major firm,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8(2), 223-244.
- Carland, J. W., Hoy, F., Boulton, W. R. & Carland, J. C.(1984). Differentiating entrepreneurs from small business owners: A conceptu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2), 354-359.
- Carland, J. W., Carland, J. C., Hoy, F. & Boulton, W. R.(1988). Distinctions between entrepreneurial and small business ven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5(1), 98-103.
- Chaib, S. I.(2013).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 and Analysis*, 3ed, Seoul: B&B Books.
- Chen, M. J. & Hambrick, D. C.(1995). Speed, stealth, and selective attack: How small firms differ from large firms in competitive behavior,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2), 453-482.
- Chen, C. C., Green, P. G. &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ien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 Cho, K. H.(2009). A Study on the Effec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 Influencing on Entrepreneurship.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4(4), 73-80.
- Choi, J. I. & Hwangbo, Y.(2012). Development on Educator for Entrepreneurship Progra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207-214.
- Cooper, A. C. & Dunkelberg, W. C.(1986). Entrepreneurship and Paths to Business Ownership,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7(1), 53-68.
-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s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3), 25-36.
- Cromie, S. & Johns S.(1983). Irish Entrepreneurs: Som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4(4), 317-324.
- Damanpour, F.(1991). Organizational innovation: A meta-analysis of effects of determinants and moderato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4(3), 555-590.
- Diaz-Garcia, M. C. & Jimenez-Moreno, J.(2010).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role of gender,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6(3), 261-283.
- Gist, M. E.(1987). Self-Efficacy: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2(3), 472-485.
- Gist, M. E. & Mitchell, T. R.(1992). Self-Efficacy: A theoretical analysis of its determinants and malle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2), 183-211.
- Huisman, D.(1985). Entrepreneurship: Economic and cultural influences on the entrepreneurial climate. *European Research*, 13(4), 10-17.
- Feldman, D. C. & Bolino, M. C.(1997). Careers within Careers: Re-conceptualizing the Nature of Career Anchors and their Consequence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6(2), 89-112.
- _____(2000). Career Patterns of the Self-employed: Career Motivations and Career Outcom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8(3), 53-67.
- Glederen, M. V., Brand, M., Praag, M., Bodewes, W., Poutsma, E. & Gils, A.(2008). Explain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by mean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3(6), 538-559.
- Hage, J.(1980). *Theories of organizations*. New York: Wiley.
- Hair, Joseph. F., William C. Black, Barry J. Babin, & Rolph E. Anderson(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 Hofstede, G.(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lif.: Sage Publications.
- Jennings, D. E. & Zeithaml, C. P.(1983). Locus of Control: A Review and Directions for Entrepreneurial Research. In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1983(1), 417-421.
- Kanter, R. M.(1983). *The change masters: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in the American corporatio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Kim, M. S. & Kim, Y. G.(2012). Effects of Individual Trait, Educational, Organization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Tourism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5(4), 61-84.
- Kim, S. H. & Yoo, B. H.(2013). An Effect of Youth Founder's Entrepreneurship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on Possibility of Start-up Succ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677-2687
- Kimberly, J. R.(1981). *Managerial innovation*, In P. C.

- Nystrom and W. H. Starbuck (Eds.), *Handbook of organizational design*, 1, 84-10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irton, M. J.(1978). Have adaptors and innovators equal levels of creativity?, *Psychological Reports*, 42(3), 695-698.
- Kouriloff, M.(2000). Exploring perceptions of a priori barriers to entrepreneurship: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5(2), 59-67.
- Kroeber, A. L. & Parsons, T.(1958). The concepts of culture and of social syst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3(5), 582-583.
- Krueger, N.,& Brazeal, D.(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 Krueger, N., Reilly, M. & Carsrud, A.(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 411-432.
- Lee, J. W.(2000).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22(1), 121-146.
- Long, W. A., Tan, W. L. & Robinson, P. B.(1995). *The relationship of attitudes to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1995 Babson College-Kauffman Foundation Entrepreneurship Research Conference
- Levenson, H.(1973), Perceived parental antecedents of internal, powerful others, and chance locus of control orientations, *Development Psychology*, 9(2), 268-274.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_____ (2001). Linking two dimension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o firm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environment and industry life cycl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6(5), 429-451.
- MacMillan, I. & Katz, J.(1992). Idiosyncratic milieu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The need for comprehensive theor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1), 1-8.
- Martin, J. N. & Nakayama, T. K.(200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context*, London: Mayfield
- McClelland, D. C.(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NJ: Van Nostrand Reinhold.
- McGrath, R. G., MacMillan. I. C. & Scheinberg, S.(1992). Elitists,risk-takers,and rugged individualists? An exploratory analysis of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entrepreneurs and non-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2), 115-135.
- Miller, D.(1987). The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correlates of business strateg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8(1), 55-76.
- Mintzberg, H.(1973). *The nature of managerial work*, New York: Haper and Row.
- Moon, S. Y. & Hwangbo, Y.(2011). An Exploratory Study on Start-up Opportunity Sources Analysis and Opportunity Search of Korean Young Entrepreneu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6(4), 39-57.
- Moon, Y. & Franke, G. R.(2000). Cultural influences on agency practitioners' ethical perception: A comparison of Korea and the U.S., *Journal of Advertising*, 29(1), 51-65.
- Mooradian, T. A. & Swan, S. K.(2006), Personality and culture: The case of national extraversion and word-of-mouth,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9(6), 778-785.
- Moore, C. F.(1986). *Understanding entrepreneurial behavior*, In J. A. Pearce, II, and R. B. Robinson, Jr. (Eds.), *Academy of Management Best Papers Proceedings*. Forty-sixth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Chicago.
- Mueller, S. L. & Thomas, A. S.(2000). Culture and entrepreneurial potential: A nine country study of locus of control and innovative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6(1), 51-75.
- Park, D. S. & Ku, E. H.(2007). An Exploratory Study on Entrepreneurship and Its Effects on the Growth Intention in Venture Busines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6), 2979-3011.
- Perry, C.(1990). After further sightings of the Heffalum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5(2), 22-31.
- Redmond, M. R., Mumford, M. D. & Teach, R.(1993). Putting Creativity to Work: Effects of Leader Behavior on Subordinate Creativit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5(1), 120-151.
- Robertson, C. J., & Hoffman, J. J.(2000). How different are we? an investigation of confucian valu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12(1), 34-47.
-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
- Schein, E. H.(1990). *Career Anchors: Discovering Your Real Values*, San Diego, Calif.: Pfeiffer and Company.
- Scheinberg, S. & MacMillan I. C.(1998). *An 11 Countries Study of Motivations to Start a Busines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669-687, Wellesley, MA: Babson College.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Brunswick(USA) and London(UK).
- _____ (1954).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 Schwartz, R. G., Teach, R. D. & Birch, N. J.(2005). A longitudinal study of entrepreneurial firm opportunity recognition and product management strategies: implications by firm type,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and Research*, 11(4), 315-29.
- Sexton, D. L. & Bowman, N. B.(1986). *Validation of a personality index: Comparativ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alysis of female entrepreneur, managers, Entrepreneurship Students, and Business Students*. In Ronstadt, J. A,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Boston, Mass: PWS-Kent publishing Company.
- Shane, S. & Venkatarama, S.(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 (1), 217-226.
-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 Storey, D. J.(1994). *Understanding the small business sector*, London: Routledge.
- Tavakoli, A. A., Keenan, J. P. & Crnjak-Karanovic, B.

- (2003). Culture and whistleblowing an empirical study of Croatian and United States managers utilizing Hofstede's cultural dimens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43, 49-64.
- Vitell, S. J., Nwachukwu, S. L. & Barnes, J. H.(1993). The Effects of culture on ethical decision-making: An application of Hofstede's typolog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10), 753-760.
- Yoon, B. S.(200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n Business Review*, 17(2), 89-106.
- Yoon, N. S.(2013). The comparative study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s,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between the students of the cyber university and the traditional university, *Daehan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26(3), 491-510.
- Venkatraman, N.(1989). Strategic orientation of business enterprises: The construct, dimensionality, and measurement, *Management Science*, 35(8), 942-962.
- Zaltman, G.(1973). *Processes and phenomena of social change*, New York: John Wiley&Sons.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Moderating effect of Hofstede's Cultures Dimensions

Oh, Hae Dong*
Choi, Jiyeon**
Noh, Jeon Pyo***

Abstract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ship are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entrepreneurial intentions. Despite this,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external factors ,which effects to venture start-up decision.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ship by moderating effect of Hofstede's cultures dimensions theory. For this, 244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empirically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internal locus of control, self-efficacy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autonomy, innovativeness, pro-activeness. In addition, uncertainty avoidance of Hofstede's cultures dimensions theory were found the moderating effects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 below,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ly, pro-activeness take a important part on venture start-up. Thus, venture start-up institution and venture managers need to develop "venture education curriculum" that fostering the pro-activeness mind of entrepreneur. Secondly, In order to anticipate entrepreneurial intentions more precisely, analyzing the interaction between environmental variables and individual variables is desirable. Lastly, in the future study of entrepreneurship,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that including three factors of entrepreneurship is need to be conducted and more effective way of readdressing the entrepreneurship is necessary.

Keywords: Internal Locus of Control, Self-Efficacy, Proactiveness, Entrepreneurial Intentions, Hofstede's Cultures Dimensions Theory

* first author, Ph.D candidate,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of Government & Business, Yonsei University, haedongoh@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Ph.D candidate,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of Government & Business, Yonsei University, cji0853@naver.com

*** co-author,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of Government & Business, Yonsei University, nohj@yonsei.ac.kr